

기도의 제단으로 돌아갈 때 - 우리의 가장 긴급한 필요

● 7일 - 예배중심의 교회

“오라 우리가 곱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 95:6)

(불)규칙적인 예배

2018년 전 세계 재림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재림교회 가정의 34퍼센트만이 정기적으로 아침저녁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인의 52퍼센트만이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배 중심의 교회, 계 14:6-12의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교회가 성도들이 개인예배와 가정예배를 성실히 하지 않는다면 이 장엄한 기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매일 실행하지 않는 일을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엘렌 화잇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여 얻는 결과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없다.” (교회증언 6권, p.47).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부조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으로 가서 천막을 치든지 주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아야 한다... 부모들은 그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겸손한 탄원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주 바쳐야 한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조석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한편 아내와 자녀들은 기도와 찬미로 연합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새자녀지도법, p.518,519).

우리의 가장 긴급한 필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에게 지금 가장 긴급한 필요는 아마도 개인 및 가족 예배의 회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점점 더 차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는 기술의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특히 소셜미디어에 대한 중독은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며, 외롭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고, 잠 못 이루며, 삶에서 우리의 지위에 불만족하게 합니다.

역설적으로 개인 및 가족 예배는 반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외로움을 감소시키며,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평화의 마음을 증가시키며, 우리의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가 우리의 지친 정신과 불안한 마음에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에 무너진 개인 및 가족 제단을 다시 쌓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으로 “다시 제단으로” 라는 계획을 시작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우리는 재림교인의 최소 70%가 아침과 저녁에 개인 및 가족 예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관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겠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계속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제단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사역을 마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예배 경험에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별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시간(30-45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 당신이 참으로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우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임을 얼마나 자주 깨닫지 못하는지요. 우주의 광대함도 당신을 담을 수 없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그에 따른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당신을 공경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의 끝자락이라도 살짝 보여주셔서 우리로 당신이 모든 영예와 영광과 숭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와 존경심으로 당신께 다가가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아멘.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최고의 예술 대가이십니다.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은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모든 꽃봉오리와 잎사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며,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한 소망을 두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녀라 불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영예를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고 우리를 만드신 당신을 경배합니다! 아멘.

그밖의 기도 제안들

감사와 찬양: 구체적인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라.

고백: 몇 분동안 개인적인 고백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인도: 현재의 도전과 결정을 위해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교회: 지역교회와 세계 교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각 구별된 기도요청을 참고).

지역교회의 요청: 교회 성도들, 가족,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

경청과 반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찬양으로 화답하라.

찬양 제안

찬미가: 늘 함께하소서(364장); 주여 내 맘에 소망되소서(407장); 살아 계신 주의 영(229장)

다른 찬양: 주님, 주님께; 예배합니다